

일본의 막부체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국, 한반도와 다른 일본 중세의 특징

20200422 이수빈

중국, 일본, 한국에는 모두 무사집권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 한국에서의 군사정권은 짧았으나 유독 일본에서만 군사정권이 거의 700년 간 이어졌다. 이제부터 중국,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비교적 짧았던 이유와 일본의 막부체제는 비교적 장기화됐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에서는 고대 율령제 사회인 당 말기에 사회적 동요가 일어났다. 절도사들의 세력이 위협적으로 커진 것이다.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등 여러 차례의 난이 발생했으며 결국 5대 10국으로 전국이 분열되어 무인정권 사회가 펼쳐졌다. 하지만 곧 전국을 송이 다시 통일하여 철저한 문치주의를 실행하였다. 송을 건국한 주요 인물은 조광윤으로, 무인인 절도사 세력 출신이다. 이는 매우 모순돼 보이지만, 조광윤은 5대 10국이라는 혼란의 원인이 절도사이며, 이를 잠재우려면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렇게 군사정권은 막을 내렸다.

다음으로, 한국의 고려에서는 문신의 무신 차별이 팽배해 있었다. 과거제도에서 무인을 뽑는 무과가 없었으며, 무신은 승진이 제한됐고, 문신들의 성과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평화가 무려 150년 간 지속됐기 때문에 차별은 점점 심해졌다. 그로 인해 고려에서는 1170년 무신정변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원이 아시아에서 점점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결국 고려까지 침략하고 말았다. 원의 정복전쟁으로 인해 고려의 무신정권은 단기간에 무마되고 원이 고려의 내정을 깊숙이 간섭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국과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국가에서는 개인의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면서 호족이 대지주로서 급격히 세력을 키워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무사들을 조직했으며, 이렇게 무사 세력 또한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¹⁾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천황과 막부의 이원론적 지배 형태를 시행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실권은 막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천황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무사는 쇼군과 고케닌, 게닌으로 나뉘었으며, 유력 무사들은 슈고와 지토로 파견되어 조세를 징수하거나 무사들을 통솔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슈고는 원래 군사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시대를 거치며 센고쿠 다이묘, 즉 영주로 세력을 확대해간다. 정리하자면, 무사 세력이 등장하고 막부가 설립되고 나서 무사들, 특히 슈고 세력이 점점 더 힘을 키워 정치적 실권, 군사권뿐만 아니라 직접 대지주가 되어 토지 사업을 운영하며 조세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무사와 장원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고대 율령제의 토지제도와 모순되므로, 이러한 사회 형태와 율령제는 공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막부체제는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일본 내부에는 무사 세력을 저지할 다른 유력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영토 범위를 역사적으로 크고 빠르게 확장해나갔던 원의 침략마저 가마쿠라 막부가 두 차례나 막아낸 후 바로 무로마치 막부라는 또 다른 군사정권이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막부체제가 장기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시한 병농분리 제도를 1603년 성립한 에도 막부에서도 계속 실행하면서 무사와 다이묘는 세력이 분리되었고, 군사 정권은 에도 막부에서 끝이 난다.

1)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1180년 설, 1183년 설, 1185년 설, 1192년 설 등이 있다. 이 중 1185년은 지토, 슈고의 설치에 대해 칙허를 받은 해이다. (참고자료: 보조교재 text_무신정권&송&이민족왕조)